



“인사청문 투 트랙 검증으로 개선해야”

제주도의회 제40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

고익숙 의원 “도덕성·정책검증 분리 시스템” 제안
오영훈 지사 “문제 인식... 법과 제도 바뀌어야” 의지

민선8기 제주도정 출범 이후 인사청문회 문제점이 지속 제기되는 가운데 청문 후보자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고익숙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선거구)은 21일 열린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오영훈 제주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을 통해 현 제주도 인사청문회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하며 도덕성 검증과 정책검증을 각각 분리하는 투 트랙 방식의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고 의원은 “도정의 주요 인사와 관련 도민들 사이에서 ‘예전과 다를 바 없다’는 등의 말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전과 너무나 똑같은 방식, 도의회 인사청문회 결과를 무력하게 하는 임명과정을 민선8기 제주도정이 이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실망이 앞선다”며 인사청문회 개선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답변에 나선 오 지사는 “인사청문회는 법과 제도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바꾸어야 하는데, 제주도 도의회가 이 법과 제도를 바꾸기 위해 합의했다”고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인사 검증과 관련해 지금 제도에서는 범죄경력증명서, 관련법 위반 여부만을 경찰청으로



21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제주도의회

부터 전과기록 회신을 받고 있다”면서 “추가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자료요청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투트랙 방식의 인사 검증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제주도가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고, 도의회

는 정책검증을 하는 내용이다.

이에 오 지사는 “국회에서도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대두될 때마다 거론되는 대안이지만, 아직까지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도덕성 검증 여건이 마련된다면 좋은 제도 개선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제주도의회 정례회 22일 도정질문 요지

학교밖 청소년 지원 방안은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학교밖 청소년 장학금 지급에 대한 견해는, 제주도립예술단 악기관련 비용 전액 단원 자부담에 대한 견해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관련 추진 상황은, 서귀포시 동흥동 및 동지역 차량, 제2동흥 119센터 조기 건립은, 서귀포시 의료인프라 확대 대책은.

소득 불평등 해소 위한 방안은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행정자치위원회)=소득 불평등 해소 방향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제주도내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현실적 지원 방안은, 제주도 공무원 복무 및 인력 운영조례 제정 의향은, 도남동 분동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시민복지타운 시청사부지 활용 방안은.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 변경 견해는

▶원화자 의원(국민의힘·보건복지안전위원회)=제주미래비전계획 중단에 대한 견해는, 국제자유도시 비전 변경과 제3차 종합계획 수립 등으로 인한 문제점 해결 방안은, 행정시 폐지를 통한 읍면동 중심 근린 자치 실현에 대한 견해는, 원도심 주자문제 해결 방안은, 맞춤형복지팀 확대 방안은.



읍면 행정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은

▶강봉직 의원(더불어민주당·환경도시위원회)=스마트 그린 15분 제주 공약의 구체화 방안은, 읍면 지역 행정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방안은, 화포두리 항공유류 토지매입 및 발굴조사 등 종합정비 상황은, 농업경영비 부담완화 방안은, 가족농노, 축산악취 등의 민원 발생 갈등 문제에 대한 견해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지원 정책은

▶김창식 교육의원(제주시 서부·교육위원회)=제주만의 출산율 장려 정책사업 등의 추진은, 비영리 체육단체 관리 대책은, 도내 공공체육시설 확충방안은,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따른 지원 정책은, 불법체류자 관리 및 대안은, 과대예산 편성으로 소모적 방만한 사업운영 등에 따른 대안은.



“제주 공공하수처리장 민간에 맡겨야”

강경문, 민간 위탁 방안 제안
오 지사 “검토할 필요 있어”



강 의원은 “전국의 하수처리시설

통해 “공공하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선 전문인력을 보유한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게 필요하다”며 민간 위탁 방식을 제안했다.

강 의원은 “전국의 하수처리시설 4281개소 중 민간 위탁하는 곳이 3576개소로 약 83.5%다. 이 중 공기업은 417개소 9.7%를 차지한다”며

“지자체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은 제주를 포함해 약 6.7%에 불과하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시범사업을 통해 하수처리시설이 잘 운영된다면 환경공단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 지사는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 관리하는 경우가 극히 적음에도 도내 전체 8개 하수처리시

설을 모두 직영 운영하고 있다는 데 저도 문제의식을 같이 하고 있다”면서 “전문기관의 관리 대응을 맡기는 것이 장기적으로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공감했다. 이어 “앞서 논의됐다가 중단된 시설공단 설립과 관련해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강 의원이 하수처리지를 이용해 건축자재를 만드는 보도를 소개하자, 오 지사는 “하수슬러지 처리와 관련한 고민을 이해한다”면서도 “건조율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가 문제다”고 구체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태윤기자

제주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 ‘시동’

컨설팅 등 지원체계 가동

제주도는 민선8기 도정 핵심공약인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를 위해 상장 희망기업 중심으로 전문적인 역량 진단을 실시하고 10월 31일 한국거래소 등 상장 유관기관

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제주도가 지난 8월 24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수요조사를 실시해 증권시장 상장을 희망하는 기업을 파악한 결과 24개사가 의향을 보였다.

제주도는 수요조사에 참여한 기업을 우선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실시한 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기관에 역량진단을 의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각 기업의 가장 취약한 분야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 분석하고, 향후 상장 희망기업 지원정책 설계 시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10월 31일 상장 주관기관인

한국거래소를 비롯해 도내 기업지원 유관기관, 지역금융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장희망기업에 대한 정보공유, 컨설팅 등 최적의 지원체계를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상장희망기업에 대한 2차 수요 조사는 상장지원시책이 구체화된 이후인 2023년 상반기 중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다. 고대모기자

제주 탐라순력도 활용 강화

제주특별자치도는 ‘탐라순력도’ 등 제주 문화를 활용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상품을 널리 알리고 판촉활동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제주도는 사회적경제 지원기관 등과 협력해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상품을 4개 권역별로 15개 내외로 엄선하고, 300년 전 제주의 모습을 담은 ‘탐라순력도’에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정보를 수록해 10월부터 판촉활동 등에 활용한다.

다음달 제작되는 제주 사회적경제기업 순력도는 관광지, 공공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고대모기자

제주 4·3 희생자유족회
Association for the bereaved families 4·3 victims

제10회 제주4·3유족 한마음대회 개최 안내

제주4·3희생자유족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10회 제주4·3유족 한마음대회를 개최합니다. 화해와 상생의 장에서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유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다 음

- 일 시 : 2022년 9월 25일(일) 오전 10시 30분 - 개회식
※ 오전 9시부터 접수, 10시부터 식전공연 예정
- 장 소 : 4·3평화교육센터(제주시 명림로 430, 봉개동)
- 주최/주관 : 제주4·3희생자유족회
- 후 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4·3평화재단
- 문 의 처 : 유족회 사무국(전화 724-4343~4)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장 오 임 종

학술세미나

을묘왜변과 지역사회의 대응, 역사문화자원화

주관·주최 **Jeju 제주특별자치도 JRI 제주연구원**
후원 **한리일보**

2022. 9. 22.(목) 13:00
제주아스타호텔

시간	행사	내 용
12:50-13:00	등록	
13:00-13:15	개회	국민의례/새만남소개/인사말/축사
13:15-13:45 (30분)	(기초발표)	*“잊혀진 제주의 첫 승전사-., 제주을묘왜변 재조명과 역사상 강만생(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위원장)
13:45-13:50 (5분)	휴식	단상정리
13:50-15:20 (90분)	(주제1) 을묘왜변과 영암의 대응	좌장 : 김병인(전남대학교 사학과 교수) 발표1 : 을묘왜변과 영암 달량 전투 김덕진(광주교육대학교 교수) 발표2 : 영암지역 양달사 정군과 청우대의 의병활동 노기욱(호남의평연구소 소장) 발표3 : 왜구침입으로 본 을묘왜변 정연성(전남대학교 문화유산연구소 연구원) 토론1 : 인종경(목포대학교 호남문화콘텐츠연구소 연구원) 토론2 : 김용철(전남대교수 신진연구소 연구원) 토론3 : 이영현(영암학회장)
15:20-15:30 (10분)	휴식	-
15:30-17:00 (90분)	(주제2) 을묘왜변과 제주의 대응	좌장 : 문영택(사단법인 질토레비 이사장) 발표4 : 제주을묘왜변의 재조명과 역사적 의의 홍기표(前 상균대학교 사학과 겸임교수) 발표5 : 제주을묘왜변과 역사인물 김석운(제주대학교 강사) 발표6 : 조선전기 왜구와 제주의 방어체계 오수정(제주여성가족연구원 경영지원실장) 토론4 : 윤성익(경희대학교 강사) 토론5 : 김익수(제주불교신문 대기자) 토론6 : 강문규(前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소장)
17:00-17:10 (10분)	휴식	-
17:10-18:10 (60분)	(주제3) 역사문화자원화의 문화원형 및 콘텐츠 발굴	좌장 : 문순덕(제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발표7 : 영암읍성의 원형 추정과 문화유산 활용방안 성대철(사단법인 전남문화재단연구원 건축문화재연구소장) 발표8 : 제주을묘왜변의 역사문화자원화 원혜경(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 토론7 : 송태갑(영암군립하정음미술관 관장) 토론8 : 김형훈(미디어제주 편집국장)
18:10-18:20	마무리	이후 만찬